

46

변화된 바울

사도행전 9장 1~22절, 22장

청년 사울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갑자기 해보다 밝은 빛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명령하는 일을 행하여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10)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사울은 곧 눈이 떠졌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 창문으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작은 자’란 뜻의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1.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 보세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을 입은 부름에
 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1)

2.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14)

3. ¹⁾사울은 ²⁾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싶은 다른 이름이 있으면 적어 보세요.

¹⁾사울: 큰 자, ²⁾바울: 작은 자

4.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여러분의 꿈을 적어 보세요.

나 :



“바울처럼 전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잘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돈을 벌어서 해외선교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할 거예요.”



예 화

* 그리스도의 사랑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가끔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한번은 봉사하기로 결심한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선교사 후보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동기는 좋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하면, 그런 동기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견디게 해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